새해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급반등'…시장 경색 풀릴까

광주 22.6p·전남 11.1p ↑ 개선 기대감
대출 여건 완화·미분양 세제 혜택 영향

지난달 전국 최저를 기록했던 광주지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광주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난달 53.8에서 76.4로, 5대 광역시 중 가장 큰 폭인 22.6p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남도 66.6에서 77.7로 11.1p 올라 도 지역 중 가장 뚜렷한 상승을 보였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5.1로 지난달보다 9.6p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평균 10.5p가 올라 91.2로 나타났다. 광주(53.8→76.4, 22.6p↑), 대구(68.1→87.5, 19.4p↑), 부산(80→90.0, 10.0p↑), 세종(90.9→100.0, 9.1p↑), 대전(91.6→93.7, 2.1p↑)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울산은 100.0으로 지난 달과 같았다.

광역시는 지난해 11월 이후 각 지역별 핵심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며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연초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 재개로 잔금납부와 입주 애로가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지역은 78.8로 전월 대비 4.7p 상승했다. 도 지역 중 전남(66.6→77.7, 11.1p↑), 충남(66.6→76.9, 10.3p↑), 강원(62.5→70.0, 7.5p↑), 경북(80.0→86.6, 6.6p↑), 충북(71.4→77.7, 6.3p↑), 제주(58.3→60.0, 1.7p↑)순으로 입주 전망이 개선됐다.

도 지역 전반의 입주전망 상승에는 올해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제도(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라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76.6→100.0, 23.4p↑), 인천(59.0→80.76, 21.7p↑), 경기(70.9→87.5, 16.6p↑)는 모두 크게 상승해 수도권 전체(89.4)로는 20.5p의 큰 오름폭을 보였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1.2%로 전월 대비 4.7%p 하락했다.

수도권(83.6%)은 2.2%p 상승했으나 5대 광역시(55.8%)는 2.4%p, 기타지역(56.2%)은 9.6%p 각각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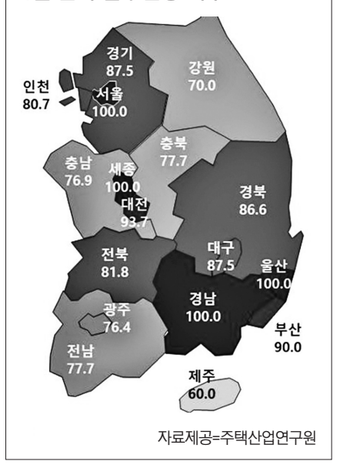
이 중 광주·전라권은 69.0%에서 50.8%로 18.2%p 감소했다.

미입주 사유는 잔금대출 미확보(28.6%), 기존 주택 매각 지연(24.5%), 세입자 미확보(18.4%), 분양권 매도 지연(8.2%) 순이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연말 시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해 전국 입주율은 하락했다"며 "수도권은 지난해 10월 대출 접근성이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현금이 풍부한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연말 금융 여건의 영향이 작았던 데다 공급 부족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1월 전국 입주전망 지수



자료제공=주택산업연구원

신협, 지방보조금 서비스 개선
이용 편의성·접근성 향상 기대

신협중앙회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에 참여하며, 지방보조금 관련 금융서비스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참여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개인·단체는 전국 각지의 신협 영업점에서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과 전용 카드 발급 등 관련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협은 안정적인 '보탬e'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시중은행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이나 소도시에서도 지역 내 영업망을 갖춘 신협을 통해 보조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금융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협은 이번 참여를 계기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금융서비스 영역에서도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따뜻한 금융'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대강당에서 지역 출신 6급 신입행원 24명에게 임용장을 교부하고, 새내기 직원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농협은행 전남본부 신입행원 24명 '힘찬 출발'

지역 출신 인재 채용…영업점 배치 후 현장 근무 시작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대강당에서 지역 출신 6급 신입행원 24명에게 임용장을 교부하고, 새내기 직원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번에 채용된 신입행원들은 전남에 거주하거나 전남 소재 학교를 졸업한 지역 인재로, 임용장 교부식을 마친 뒤 각 영업점에 배치돼 본격적인 첫 근무를 시작한다.

신입행원들은 배치 이후 선배 직원과의 1대1 직무 멘토링을 통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업무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은행원으로서의 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장재영 농협은행 전남본부장은 "변화와 도전의 시대인 2026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든든하며,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부임한 영업점에서 신규 직원으로서의 열정과 동심협력의 자세로 동료들과 적극 소통하며 빠르게 적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시·도 단위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565명을 공개채용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연령·성별·학력·전공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의 열린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조달청,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포상

영산강유역환경청·목포시·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본부 등 3곳

광주지방조달청은 13일 '2025년도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목포시,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본부를 찾아 트로피를 전달하고 유공직원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수했다.

조달청은 매년 조달사업 실적, 전년대비 실적 신장률, 조달사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적극적인 조달서비스 이용을 통해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주신 관내 공공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수요기관의 조달업무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조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2026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 한정판 출시

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가 한정판 '올림픽 투게더' 에디션을 선보이며 올림픽 응원 열기를 이어간다.

카스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 이어 2026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사로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고자 이번 투게더 에디션을 기획했다.

에디션 양면에는 'CA'와 'SS'가 크게 새겨져 있어, 두 개의 캔을 나란히 두거나 건배 시 'CASS' 로고가 완성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캔 상단에는 카스 로고와 오륜기를 결합한 올림픽 컴포지션 로고, 2026 동계올림픽 공식 로고를 적용해 한정판의 상징성을 더했다.

동일 콘셉트의 전용잔도 함께 선보일 예정으로, 전국 대형마트에서 올림픽 투게더 패키지 또는 기존 일반 카스 묶음 패키지 2개 이상 구매 시 증정된다. 또 편의점 주류 스마트오더 전용 '카스 신선픽업' 서비스에서 카스 프레시 350㎖ 12캔 구매 시 받을 수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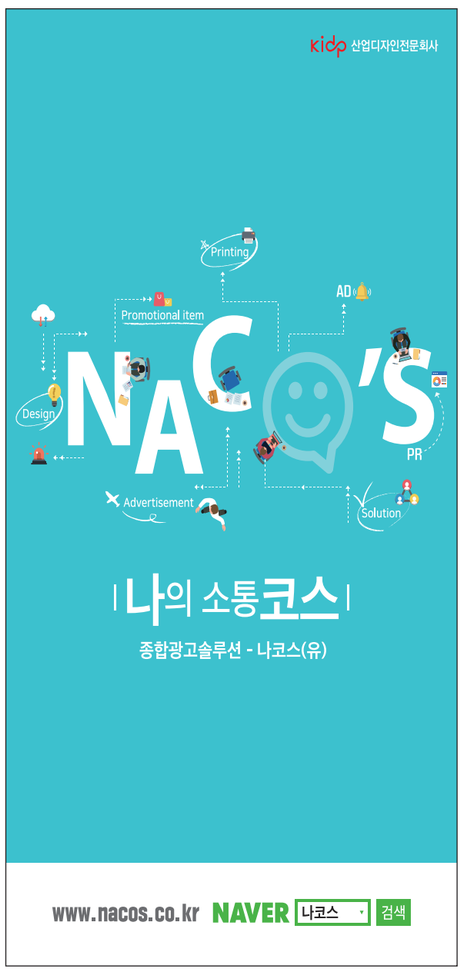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 - 8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는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해당 공사 현장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는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또한, 동일 지번 내에서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공사명	분묘 소재지	분묘 기수	분묘 번호	위치(STA)	비고
화순동면 - 송광봉산 도로시설 개량공사	총 계	5			
	전남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294-1	1	No10	1+820(우)	당초 산294
	전남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292-5	1	No11	2+050(우)	당초 산292-3
	전남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292-5	1	No12	2+050(우)	당초 산292-3
	전남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280-8	1	No12-1	2+200(중)	당초 산280-1
	전남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산80-1	1	No54	7+090(우)	당초 산80

2. 개장사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공사 (화순동면-송광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에 편입
3. 개장 후 안치장소 : 납골당
4. 개장 후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
5. 공고기간 : 2025. 11. 26. ~ 2026. 2. 27.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개장방법 :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 공고기간 중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연고자가 개장
7. 신고처
○ 화순동면-송광봉산 시설개량공사 현장사무소 : 061-852-7008
○ 우리 청 보상과 : 063-850-9163

2026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